

# 네 형제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여는 오바다-

오바다 1:10-14, 마태복음 5:22-24

정윤돈 목사님

## 서론 : 오바다 개관

오늘은 오바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발견하고자 한다.

(1) 오바다라고 하면, 우리가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보호한 그 오바다를 떠올릴 수도 있는데, 성경에는 오바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12명이 나온다. 다른 사람들이다. '오바다'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이 정확하게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2) 오바다서는 구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다. 그러나 여기에 담겨져 있는 형제 사랑, 동족에 대한 사랑은, 현대 사회 속에서나 국제관계의 측면에서나 핵심적인 신앙이며 영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짧지만 읽어 보면 그 안에 담겨 있는 말씀은 굉장하길다. 이 말씀은 에돔 족속에게 경고를 하는 내용인데, 형제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괴롭혔던 내용을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너희가 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언약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회복될 것이라는 내용이 전달되는 책이다.

우리가 창세기 3장 이야기를 하는데, 그 때문에 타락해지고(창6장), 교만해진다(창11장). 그런데 더 빨리 나오는 결과가 창세기 4장이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결과였다. 예수님도 '원수가 어디 있느냐, 가족 안에 있다'고 했다. 생각해 보면 정말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오해하고 서로 싸우며, 간섭하다가 상처를 주는 것이 가족이고 형제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 방관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간섭해서 상처를 주기도 한다. 내가 볼 때는 짧은 말이 많은 오해를 낳는 것 같다. 길게 설명해 주면 '아, 그렇구나' 싶은데, 짧게 이야기하면 오해가 나온다. 이번에 지교회 를 하면서도 나도 오해한 것이 있었다. "예수님이 피를 다 쏟으셨는데, 그 피가 대지에 쏟아졌네요?" "아, 쏟아졌느냐 안 쏟아졌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사실이 중요하지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이 땅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으신 것이구나 하고 목상이 되더라고요" 그런 의미였구나 싶었다. 참 좋은 목상이었는데, 짧게 들었더니 오해가 되었던 것이다. 상처가 났을 때는 살짝만 건드려도 크게 아프다. 우리는 '저것 가지고 왜 저래?' 싶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가 완전 성령충만을 받지 않으면 사단에게 속을 수 있다. 사랑을 나누어야 할 관계를 상처를 주고 부담을 주는 관계로 바뀌버리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아닌가. 요한 웨슬레는 '완전 복음은 완전 사랑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완전 사랑을 입었지 않나. 그 사랑을 가지고 성도를 이해하고 가족도 이해하고 사랑하는 무장을 해야 하겠다. 생각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래야 상처를 받지 않는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으면 공격을 받아도 튕겨낼 수 있지만,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사소한 공격에도 큰 상처를 받는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되기를 바란다.

(3) 그런 의미에서 형제 사랑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바다의 기록 목적도 그것이다. 오바다에는 형제인 민족 간에 왜 사랑을 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은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안에 속하게 된다. "구원 받은 자들이 시온 산에 올라와서 예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모두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축원한다.

## 1.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 첫 번째로, 에돔 족속이 형제 민족인 이스라엘에 행한 악한 행위가 무엇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내용은 무엇이었던가? 그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1) 에돔 족속의 잘못이 있다.

① 이 잘못에 대한 근원이 욥1:3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마음의 교만이 자신들을 속였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지형지물, 배경 때문에 교만해졌다. 이것이 있으니 악한 형제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이다. 자기가 배경도 있고 공부도 좀 했다고 해서, 배경 없고 공부 못 한 사람을 꾸짖고 지적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보호하고 끌어줘야 할 것 아닌

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에돔의 교만이였다.

②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재물을 빼앗을 때 에돔도 거기에 동참했다. 욥1:11에,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인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방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노략질을 할 때 같은 행동을 했던 것이다. 이것이 에돔 족속의 잘못이었다.

③ 욥1:12에,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형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방관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인 것 같다. 남이 잘 되면 너무 기쁘는가? 시기, 질투가 나지 않는가? 형제가 잘 되면 기쁘는가? 여러분은 형제, 자매가 잘 되면 함께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란다. 속 아파서 약 드리지 말고 (웃음) 성도들이 좀 잘 하면 칭찬할 줄 알아야지, 왜 못 하나고 끌어내리지 마라.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다 시간을 쪼개서 하는 것이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열 가지 중 한두 가지 잘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칭찬해 줘라. 상대방이 잘못된 부분만 이야기하면 싸움은 끊이지 않는다. 열 가지 잘 했어도 한두 가지 잘못은 있게 마련이다. 그것을 계속 지적하면 싸움은 안 끝난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장점, 잘 한 것을 한두 가지라도 부각시켜 보라.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도 한두 가지 좋은 것은 있다. 안 되면 집중해서 찾아보라. 에돔 족속은 형제의 어려움을 기뻐했다. 정말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어야 할 때 가만히 있는 상처가 만만치 않은 것이다. 너무 신경 안 써준다고 섭섭해 하는 것도 영적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방관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방관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입을 크게 벌렸다는 것은 웃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혹시 그렇지 않나. 일본에 대해서도 그렇다. 우리는 일본이 어려움을 당하면 솔직히 고소하지 않나. (웃음) 나는 심지어 일본 피가 흐르는 사람인데도, 일본이 잘 안 되면 나도 피가 잘 도는 것 같다. (웃음) 이웃이고 형제인데도 그렇다. 그게 영적인 문제다. 오래된 것이다. 창세기 3장 이후 오래된 것이다.

④ 욥1:14에, "네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도망하는 유다 민족을 돕지 않고 오히려 막았다.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을 포로로 넘겼다. 언약하고 힘이 없어서 남은 사람들을 굳이 가서 잡아와서는 포로로 팔아버렸다.

(2) 그러면 이런 에돔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징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가? 에돔 족속은 아예 역사에서 없어져 버렸다. '네 민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징계하신 것이다.

① 욥1:2에, 작은 나라로 만들어 버렸다. 주변 나라로부터 멸시까지 받게 하였다. 우리 집에서도 그런 일이 많았다. 어려운 일을 당하니가 주위에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아버지가 일일이 싸우지 않았던 것이 나는 정말 감사하다. "왜 안 싸우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좋아." 정말 하나님은 우리 후대들에게 복을 주셨다. 나는 어려움 당할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한다. 언약을 형식적으로 전하면 안되지 않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렇게 멋있게 어려움을 극복했어.' 이것이 진정한 언약의 전달이다.

② 욥1:5에, 남은 것이 없을 정도로 크게 망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가정, 친척, 이웃에게 행한 악행 때문이다.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다.

③ 욥1:6에, 보물까지 빼앗긴다. 당연한 일이다. 에돔은 야곱 족속인 이스라엘과 형제였던 야곱의 족속이었는데 그렇게 형제들에게 악행을 행했던 이들의 결말이다.

④ 동맹국에게도 배신을 당했다. 욥1:7에,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여러분, 화목하라. 친인척, 친구가 작당해서 아합하고 여러분을 괴롭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서로 원수되게 하실 것이다. 그런 것을 신경쓰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맡겨 버려라. 세상에서도 자력으로 원수를 갚지 않고 경찰과 법관에게 맡기지 않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직접 하지 마라. 우리는 용서와 사랑만 하라는 것이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⑤ 욥1:8에, "그 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예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지도자, 엘리트들까지 망하게 된다는 것이다.

(3) 그러면 에돔 족속은 왜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해야 할 영적인 것은 무엇인가?

①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복음을 상실하면 행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면

서 악행의 길을 가게 된다. 천명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모르면 그렇게 된다. 복음의 흐름을 놓친 예수의 후손은 형제들을 괴롭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다.

② 우리가 가족,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어려움을 당하라는 것이 아니다. 어릴 때부터 참 복음으로 가정을 살려라. 그것이 나중에 결국 응답이 된다. 우리 형제들을 보니까 갈수록 새로운 문제가 온다. 그래서 일부터 추척, 명절에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이야기하고 포럼도 했다. 다 응답을 받았는데도 비복음적이고 용서하지 못하고 판단을 잘못한다. 그런 부분을 두고, 그냥 야단을 치면 변화되지 않을 테니까, 사정을 다 들어주면서 말씀을 전한다. '왜 내가 그런 일을 해야 해? 내가 왜 그런 수고스러운 일을 해야 해? 왜 내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줘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왜 그래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가문의 사사,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세우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에게 그 재앙이 오지 않는다.

③ 우리가 다민족, 이웃 나라에 선교를 하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에게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 우리는 일본에, 중국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저 멀리 있는 나라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항상 나라 안에서 문제가 생겼다. 분열되는 것이다. 지금도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되고 함께 가야 할 방향을 찾아야 한다. 좌다 우다 하고 싸우고 있으니 주변 나라에서 우습게 보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되어야 한다. 지극히 선한 방법을 찾아내어야 한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 우리의 기도로 이 응답이 오게 될 것이다.

## 2. 성경이 말씀하는 형제 사랑

큰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 사랑이 어떤 것인가?

(1) 복음 다음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 미션이 형제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다. 이웃 국가, 다민족까지 사랑해야 한다. 롬12:10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존경스러운 사람이 있는가? 형제가 존경스러운가? 우리는 대통령도 무시하지 않나? 여러분, 이 땅에는 존경스러워할 만한 사람이 없다. 형제 중에서도 마찬가지다. 약점이 다 많다. 그래서 존경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찾아보면 좋은 점이 있다. 이것을 두고 용기를 붙여넣어주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 교회 안에서도 부족한 부분을 찾다 보면 존경할 목회자는 아무도 없게 된다. 이 땅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다.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가정도 마찬가지다. 다 문제가 있다. 그러나 복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존중하고 존경하라. 어릴 때 우리 교회의 장로님 중에는 어린이에게도 반말을 하지 않는 분이 있었다. 후대 랩넛트를 존중하고 존경하신 것이다. 여러분이 그런 영적 상태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한다.

(2) 요13:55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증거가 바로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란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말하고 다니면서 정작 사랑하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오히려 영광을 가리게 된다. '또 예수쟁이가 왔구나. 저것은 말만 저렇게 한다.' 이번에 100명 넘는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제101회 총회를 섬겼지 않나? 그랬더니 이번에 RU 박사원 강의를 갔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하셨다. "참 사랑교회는 너무 따뜻합니다. 정말 교회다운 교회였습니다." 솔직히 우리 별로 안 그렇지 않나. (웃음) 잠시 숙인 건데. (웃음) 그래서 그 모습이 잠시가 되지 않도록 하면 된다. 쓸 데 없는 것은 다 없애 버려라.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우리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제자가 누구인가?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말로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다. 너무 가치있는 그 이름을 두고, 삶이 되지 않으면서 말로만 부르는 것은, 그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것이다. 내가 좋은 자리 앉았다고 옆 사람을 밀치고 패를 끼치면서 '그리스도!'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위, 아래, 옆을 못 보는 것이다. 나만 보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

(3) 히13:1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진리다. 지속이 어렵지 않다. 연애할 때는 할 수 있다. 결혼 초기에도 할 수 있다. 문제는 평생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 지속하기를 축원한다. 이것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평생 지속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평생 지속하도록 준비하고, 공부하고, 전문성을 갖추지 않으면 유지가 어렵다. 끝까지 배워야 한다. 그래야 사랑도, 화평도, 부부 관계도, 부모 자녀 관계도, 중독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지속하기를 축원한다.

(4) 마5:22-24에,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다.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 '라가라'는 말은 '머리가 텅 빈 바보, 머리가 텅 빈 녀석'이라는 의미다. 모욕적인 욕이

다. "미련한 자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것은 과장법이다. 만약 진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 지옥가야 할 것 아닌가. 너무 중요하니까 명심하라는 의미다.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그런데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을 했을 때에는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다. 크게 싸웠을 때 화해하라는 말이 아니다. 원망을 만한 일은 작은 일 아닌가. 그것도 해결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바울도 이렇게 말했다. 이번에 통합측 교단에서 화해한다 해서 교리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을 풀어주었다. 그랬다가 다시 취소해 버린 것이다. 가만히 있었던 이 팀들이 '이제는 싸우겠다' 하고 나왔다. 나는 약간 기뻐다. 우리 대신 싸워주니까. (웃음) 우리가 안 싸우고 기다리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는구나 싶었는데, 내 악한 모습이다. (웃음) 성경적으로 보면, 고전6:6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을 하는 모습 아닌가? 전도 안 되는 이 때 또 고발하고 소송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으니," 그 자체가 허물이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 왔다. 우리가 돈으로 싸울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복음이니까.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니라." 우리는 신천지 같은 진짜 이단을 두고 건져내야 하는데, 이것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사단에 게 속고 있지 않다.

(5) 롬15:25-26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과 전체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내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우리교회의 일이 아니다. 저 멀리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다. 우리도 지금 하는 헌금이 많다. RTS헌금도 우리에게 직접 하는 것도 아니다. 이번에 수해 당한 이들을 위해 교단과 협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드렸는데, 그런 재난도 우리가 직접 당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한다. 우리도 힘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모으는 것이다.

### 결론 : 형제 사랑, 이웃 사랑과 전도자의 삶의 본질 21가지

결론으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집중해서 응답받아야 할 기도제목과 미션을 드리도록 하겠다. 이번 주에는 형제 사랑, 이웃 사랑과 전도자의 삶의 본질 21가지를 연결시켜서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 그래서 일곱 가지 기도제목을 만들어 보았다.

(1)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이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과 복음으로, 원수 같은 관계 속에서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가문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충만으로 가문이 화해되게 하옵소서. 인간관계, 친구관계, 교회 안에서도 그런 화해와 용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2) 천명, 소명, 사명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역들을 이루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다민족까지 이해하고 도와주는 복지 사역을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천명, 소명, 사명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3) 단연, 필연, 절대다. "복음메시지와 복음 성구를 깊이 묵상하고 암송하다가, 당연한 형제 사랑과, 필연적인 용서와,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성도 간의 사랑, 한국 교회의 원니스까지 응답받게 하옵소서."

(4) 일심, 전심, 지속이다. "우리가 복음과 그리스도를 알았으니,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족과 친족 안에서 일심, 전심, 지속으로 끝까지 실천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5) 오직, 유일성, 재창조다. "오직 복음 전파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 집중하다가, 유일성과 재창조의 놀라운 기적까지도 체험하게 하옵소서."

(6) 24, 25, 영원이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24시간 기도하다가 25시와 영원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7) 각인, 뿌리, 체질이다. "형제와 성도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들의 오래 된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네 형제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에돔 족속은 많은 저주를 받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형제에게 행한 화해, 용서, 포용,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원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